

환경관리 · 단속권 일원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772
----------	------

발의년월일 : 2008. 11.

발의자 : 김명연 의원 외 14인

1. 주 문

- 2005. 2월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안산지역의 악취는 크게 개선이 되었으며, 이런 개선효과 뒤에는 안산시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기술 지원 그리고 기업체들의 과감한 투자와 개선노력이 있어 가능하였음. 아직도 기상상황에 따라서는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악취를 배출하고 있음.
- 악취배출시설은 대부분 대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과 중복 되나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가 경기도, 안산시로 이원화 되어 있어 관리기관의 중복 단속으로 기업체 부담 및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불만이 가중되고 환경오염물질 유출 등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관리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므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 수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산단 내 환경관리 · 단속권한을 시로 위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안산시와 시민의 부단한 노력으로 악취 민원 건수가 2004년에 비해 무려 82% 감소하였고, 대표 악취물질인 황화수소의 농도도 매년 20%이상 줄어 실제로 악취발생 정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
- 이런 성과가 나오기까지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기술지원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고 기업들도 시의 정책과 지도에 따라 방지사설 설치 및 개선 등 과감한 투자를 한 결과 이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법에 정한 기준 이내로 배출하고 있음.
- 그러나 기상상황에 따라 산단 내 악취가 주거지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악취가 없어질 때까지 강력한 지도점검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가 경기도, 안산시로 이원화되어 있어 잦은 단속으로 위축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관리기관의 중복 단속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불만이 가중되고 환경오염물질 유출 등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그리고 악취배출시설과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 대부분이 중복 적용됨을 고려하여 한번의 단속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단속권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충분한 역량과 기술력을 갖추고 악취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안산시에 대기, 수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산단 내 환경관리·단속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환경관리 · 단속권 일원화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관리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므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 수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산단 내 환경관리 · 단속 권한을 시로 위임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2005. 2월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안산지역의 악취는 크게 개선 되었고, 대표 악취물질인 황화수소의 농도도 매년 20%이상 줄어 실제로 악취 발생정도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안산시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기술지원 그리고 기업체들의 과감한 투자와 개선노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악취배출시설은 대부분 대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과 중복되거나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가 경기도, 안산시로 이원화 되어 있어 관리기관의 중복 단속으로 기업체 부담 및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불만이 가중되고 환경오염 물질 유출 등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 또한 악취배출시설과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 대부분이 중복 적용됨을 고려하여 한번의 단속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환경관리 · 단속권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관리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므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 수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산단 내 환경관리 · 단속 권한을 시로 위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8. 11.

안산시의회의원 일동